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윤 영 선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동양인의 정서표현성은 타인과 함께 있는 경우와 혼자 있는 경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실험에 입각하여, 정서표현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표현되는 정서성이며, 이를 공유-정서표현성(Co-Emotional Expression)라고 명명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정서표현성 척도들은 내용적으로 살펴볼 때 대부분 공유-정서표현성을 측정하고 있다. 정서표현성의 두 번째 유형은 혼자 있을 때 표현되는 정서성이다. 이를 비공유-정서표현성(Alone-Emotional Expression)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정서표현성 척도들이 측정하고 있지 않은 정서표현유형이다. 연구1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Alone-Emotional Expression Scale)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230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으로 구성된 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어 본 문항을 294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0문항으로 구성된 최종문항을 구성하였다.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에 대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연구2에서는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의 억제적 정서규범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억제적 정서규범의 조절효과는 없었다. 반면 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억제적 정서규범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정서표현성, 주관적 안녕감, 정서규범

[†] 이 논문은 윤영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규,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Tel : 055-772-126, E-mail : rmk92@chol.com

20세기 초까지 정서(emotion)는 감정(affect, feeling)과 혼동되어 사용되었지만, 감정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개별적 정서이고,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정서는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인 기본 정서와 문화·사회적인 영향을 받아 특정 문화에서만 나타나는 정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멸, 죄책감, 수치심, 죄책감, 당황, 경외와 같은 정서들은 문화·사회적 영향을 받은 정서라고 볼 수 있다(김경희, 2004).

Halberstadt(1991)는 표현성(expressiveness)을 유기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적 반응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이경란, 2006에서 재인용), Gross와 John(1995)은 정서표현성은 정서를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등의 행동적 변화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Riggio와 Freidman(1982)는 정서표현성을 얼굴 표정을 포함한 모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동으로부터 판단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표현적이고 개방적이며 억제적이지 않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Kring, Smith 및 Neale(1994)는 정서표현성을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표현의 내용도 정적요소나 부적요소에 상관없으며, 표현 양식 또한 얼굴 표정, 음성표현, 제스처에 의한 표현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을 경험한 정서를 얼굴 표정, 몸짓, 말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인지 정서이론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고, 수치심과 같은 정서는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이훈구, 이

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각 문화들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다르며 각 문화권들의 정서 경험과 표현이 다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윤, 심현인, 이숙중(2014)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특성이 한국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정든 사람과는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정서표현을 하는 것이 집단의 조화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타인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자신의 정서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Ekman et al., 1987). 하지만 동양문화가 정서표현을 자제한다고 해서,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정서표현을 자제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문화에서는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서표현을 억제하지만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정서표현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Friesen(1973)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일본인과 미국인의 얼굴표정을 관찰하는 실험을 통해 서양인과 동양인의 정서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서양인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얼굴표정으로 드러냈지만 동양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웃음으로 숨겼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본인과 미국인에서 모두 부정적인 정서가 얼굴표정으로 드러났다. 즉, 동양 문화에서는 정서를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정서표현을 하지만 타인과 있을 때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타인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의 정서표현성과 혼자 있는 정면에서의 정서표현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존의 정서표현성 척도들은 타인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정서를 표현 하는 정도를 주로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Kring 등(1994)이 개발한 정서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에서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우 감정적인 사람으로 본다.” 와 같이 타인의 앞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주로 포함한다. 반면, 몇몇 척도들에서는 혼자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이 섞여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King과 Emmons (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성질문지(Emotional Expressivity Questionnaire)는 “나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웃는다.”와 같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항은 명백하게 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표현하는 정서와 관련된 문항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을 공유-정서표현성과 비공유-정서표현성으로 나누어 정의해 볼 것이다.

공유-정서표현성(Co-Emotional Expression). 공유-정서표현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표현되는 개인의 정서로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타인이 알 수 있도록 얼굴 표정, 몸짓, 말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Gross와 John(1995), Kring 등(1994), 그리고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기존의 정서표현성 척도들은 공유-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

인다. 공유-정서표현성 문항의 예를 들자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상대방과 수다를 떨면서 활짝 웃는 것’과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비공유-정서표현성(Alone-Emotional Expression). 비공유-정서표현성은 개인이 느끼는 정서를 타인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는 억제하면서 혼자 있는 장면에서만 표현되는 것이다. 비공유-정서표현성 문항의 예를 들자면, ‘억울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화를 내거나 우는 것’,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웃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혼자 있을 때에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Alone-Emotional Expression Scale)를 개발하는 것이다.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한국 문화에서의 정서표현 특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표현성,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정서규범의 관계.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유주현, 2000; 정은임, 2004; Buck, 1984; Gross & John, 1997; Lazarus, 1991). 그 예로, 외상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글이나 말로 과거의 외상을 설명하도록 한 연구에서 정서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서적 회복에 좋다는 것이 발견되었고(Esterling, L’Abate, Murray, & Pennebaker, 1999; Littrell, 1998),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 표현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정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지

지 등의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주일, 1998; 한정원, 1997; 이경란, 2006에서 재인용).

이처럼 일반적으로 정서는 표현될수록 유익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주장이나, 전략적으로 정서를 억제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며, 정서표현 자체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Kashdan, 2006; 이화수, 2014에서 재인용). 즉, 정서표현성만을 고려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보다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등을 고려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해연, 민경환, 2005; 현명호, 김민경, 2013). 정서표현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인,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및 신념은 정서규범과 연관되어 있다. 정서규범은 정서 표현에 대한 사회의 표준적 기대를 내포하고 있으며 암묵적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Knowles, Morris, Chiu, & Hong, 2001). 정서규범에는 감정규칙(felling rules)과 표현규칙(display rules)이 있는데, 감정규칙은 어떤 사건에서 발생해야 할 적절한 정서 내용, 강도, 지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신념이다(Hochschild, 1979). 그리고 표현규칙은 어떤 정서를 얼마큼 '표현해야'하는지에 대한 정서규범이다. 정서규범은 문화마다 다르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며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의 정서규범에 따라 적절한 정서를 느끼고 적절히 정서를 표현하기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정서 규범은 문화의 차이를 만든다(Friesen, 1973).

한국의 정서규범은 정서를 통제 혹은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집단의 이익에 반하거나 집단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는 사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왔다. 따라서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수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자주 발생한다(최상진, 김태연, 2001). 즉,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부정정서의 표현을 억제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도 다소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다. 한규석(1991)은 우리 문화의 이러한 정서특성을 기술했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미소를 띠는 것이 적절하고, 크게 웃는 것은 '얼굴을 깬다.'하여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더 나아가 예부터 우리는 표정의 근엄함을 잃지 않기를 강조했는데 이는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이라고 한다.

한편, 개인의 정서 표현 욕구와 사회의 정서규범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경험과 표현되는 감정의 내용 사이에 생기는 불일치가 정서표현성과 함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면 개인은 정서규범과 정서표현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서규범을 어기고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면 정서표현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미치는 정서규범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우소연

(2002)의 연구에서 억제적 정서규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정서표현을 많이 할 경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낮았으며, 억제적 정서규범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정서표현을 한 경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억제적 정서규범을 내재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정서표현을 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다. 반면, 억제적 정서규범을 내재화한 경우에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 정서표현과 주관적 안녕감이 부적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억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미국인 집단에서는 정서억제를 할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인 집단에서는 정서억제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어떤 관련성도 찾을 수 없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본 연구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의 억제적 정서규범의 역할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우소연(2002)과 이은경(2008)의 연구에서의 정서표현성은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 및 타인에게 정서를 억제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정서표현성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만을 고려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이었다. 정서규범이 타인과 관계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타인에게 정서표현을 하는 것은 정서규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서를 표

현함에 있어서 혼자 있는 장면에서만 정서를 표현한다면, 이는 정서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서척도들로 측정된 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우소연(2002)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지를 알아보고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정서표현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억제적 정서규범의 영향을 파악해 볼 것이다.

연구1.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방법

참여자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개발을 위한 1차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와 진주시에 소재하는 G대학교에서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4명의 자료를 제외한 23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자가 115명, 여자가 115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1.66세로 범위는 18세에서 29세까지였다.

또한,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2차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D대학교와 진주시에 소재하는 G대학교에서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응답한 경향이 있는 152명의 자료를 제외한 294명의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남자가 119명, 여자가 175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1.33세로 범위는 18세에서 29세까지였다.

측정도구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Alone-Emotional Expression Scale: AEES). 정적 및 부적 정서 경험척도(positive affect &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와 기존의 정서표현척도들을 고려하여 타인에게는 표현하지 않은 채 혼자 있을 때에만 정서를 표현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9명이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했다.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예비문항은 31문항이며 7점 Likert척도이다.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BEQ). Gross와 John (1995)이 개발한 척도로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Berke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는 정서 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16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7점 Likert척도이며 정적 표현성, 부적 표현성 및 충동강도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표현성이 .788, 억제가 .528, 충동강도가 .614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성 척도(EES). Kring 등(1994)이 개발한 정서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를 한정원(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 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점 Likert척도로 평정한

다. 한정원(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03였다.

정서표현 양가성(AEQ-K). 정서를 표현하는데 대한 갈등을 측정하고자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 표현 갈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최혜연과 이동귀(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총 24문항, 5점 Likert척도 평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기-방어적이 .889, 관계-관여적이 .793, 전체 내적합치도는 .905이었다.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자료분석은 PASW Statistics 18.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자료 점검, 변인들 간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 평가를 하였다.

비공유-정서표현성의 하위 요인은 부정 정서 표현, 긍정 정서표현으로 구성했는데, 그 이유는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1993)의 연구에서 한국어 정서단어분석을 한 결과, 쾌-불쾌 차원이 나타나고 다른 차원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설문조사에서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와 공유-정서표현성 척도(BEQ, EES)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비공유-정서표현성의 예측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예비문항을 검증하여 본문항을 산출했다. 본문항은 12문항이었으며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2차

설문조사에서 2문항이 제거되어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최종문항은 10문항이 되었다. 요인 구조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확인을 위해 내적일관성계수와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논의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주축요인분석, 직접오블리민)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요인의 수가 8개였다.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내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직접오블리민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카이제곱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2요인모형($\chi^2=1223.813$, $df=404$, $p<.000$, $RMSEA=.01125$)과 3요인모형($\chi^2=996.505$, $df=375$, $p<.000$, $RMSEA=.00942$)의 $RMSEA$ 의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떨어지지만 3 요인모형부터는 $RMSEA$ 의 값의 변화가 0.01보다 작게 된다. 통상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0.01이하면 모형의 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인 수 증가에 따른 모형의 변화가 없다면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요인모형 구조를 최적으로 판단하였다.

요인의 수를 2로 고정시킨 후, 탐색적 요인분석

(주축요인분석, 직접오블리민)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Communality)값이나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 두 개 요인에서 .30 이상씩 부하된 문항과 의미를 보았을 때 예상과 다르게 부하된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문항 8번(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한다)은 의미상 부하가 예상과 달랐지만, 문항 10번(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혼자 있을 때 표현하는 편이다)에 대응되는 문항이며 연구자가 핵심문항이라고 생각하여 본 문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AEES-부정정서표현 6문항, AEES-긍정정서표현 6문항, 총 12문항의 본 문항이 추출되었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1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12문항의 본문항을 2차 설문지에서 사용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최대우도법, 직접오블리민)을 실시하였다. 문항 2번(1차 설문에서 문항 8번: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한다)은 2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AEES-부정정서표현에 부하되었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문항 9번(1차 설문에서 문항 13번: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욕을 하곤 한다.)은 2개의 요인에 .30이상으로 부하되어 있어 삭제하였다. 그 결과, 10문항의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 최종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10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AEES-부정 정서표현의 $Cronbach \alpha = .775$ 그리고 AEES-긍정 정서표현의 $Cronbach \alpha = .750$ 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1.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직접오블리민 회전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1 부정 정서표현	요인2 긍정 정서표현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화를 낸다.	.876	.014
억울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화를 내거나 운다.	.718	.017
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슬픔, 두려움, 불안, 분노, 속상함 등)을 표현하기보 다는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다.	.600	-.135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짜증을 낸다.	.548	.201
신경질이 나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신경질을 낸다(물건던지기, 소리지르기 등)	.374	.236
나는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춘다.	-.040	.709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른다.	.004	.690
기쁠 때, 자축한다.	-.048	.636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크게 웃곤 한다.	.090	.555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면 “행복하다”라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말을 한다.	.023	.476
요인 고유치	3.611	1.707
전체설명변량(%)	42.403	

주.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값을 진하게 표시함.

변인 간 상관 분석

척도들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타당성을 가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와 버클리 정서표현성 척도간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Kring 등(1994)이 개발한 정서표현성 척도와는 상관의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공유-정서표현척도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는 공유-정서표현성 척도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척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장면에서 정서표현을 많이 하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낮은 사람

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 정서표현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모형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CFI*와 *TLI*는 0.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11). *RMSEA*는 0.05~0.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0.10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 시킨다고 본다(Steiger, 1990).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chi^2=116.154$, $df=34$, $CFI=.900$, $TLI=.867$, $RMSEA=.091$).

표 2. 변인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M(SD)
1. 비공유-정서표현성	-	.168**	-.004	.398***	47.11 (10.52)
2. BEQ	.168**	-	.780***	-.129*	69.92 (11.09)
3. EES	-.004	.780***	-	-.396***	64.61 (12.25)
4. 정서표현 양가성	.398***	-.129*	-.396***	-	79.32 (13.86)

주. BEQ=Berkeley Expressivity Questionnaire, EES=Emotional Expressiveness Scale.

*** $p < .001$, ** $p < .01$, * $p < .05$.

표 3.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3주 간격)
비공유-정서표현성 총점	.667***
비공유-정서표현성, 부정정서표현	.511***
비공유-정서표현성, 긍정정서표현	.735***

주. N=41, *** $p < .001$, ** $p < .01$, * $p < .05$.

검사-재검사 신뢰도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 최종문항에 대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p < .001$)이다.

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응답한 경향이 있는 152명의 자료를 제외한 29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2의 연구대상자는 연구1에서의 2차 설문조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측정도구

연구2.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검증

방법

참여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D대학교와 진주시에 소재하는 G대학교에서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거나 사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Alone-Emotional Expression Scale: AEES).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는 연구1에서 추출된 문항을 사용한다. 개인이 경험한 정서를 타인이 있을 때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에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총 10문항이며 7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한다.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부정 정서표현 .770, 긍정 정서표현 .691이었다.

공유-정서표현성 척도(Co-Emotional Expression Scale: CEES).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성질문지(Emotional Expressivity Questionnaire)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성질문지는 정서표현성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16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원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의 갈등의 구분하기 위한 시도로 개발되었는데 정적 정서표현, 부적 정서표현, 및 친밀감의 표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황정원(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16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계수는 Cronbach $\alpha = .811$ 이었다.

억제적 정서규범 척도. 개인이 정서 규범을 얼마나 내면화하고 인식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윤주(2002)가 개발한 정서규범 척도이며, 이 척도는 김성훈(1994)이 제작한 조직 장면에서의 감정규범 척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Markus와 Kitayama(1991)가 문화 유형에 따라 분류한 자아중심적-타인중심적 정서의 억제와 기대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첨가되어 있다. 우소연(2002)의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 정서 규범과 억제 규범에 5문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정서 및 개발 정서 규범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규범 척도는 원래의 15문항에 5문항이 포함되어 총 20문항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소연(2002)이 수정한 정서규범 척도를 사용하였다. 억제적 정서규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정서를 억압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고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20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계수는 Cronbach $\alpha = .781$ 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안녕감 중에서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Converse Rodgers (1976)이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번안한 주관적 안녕감 지표(Index of well-being)는 각각의 문항이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가 한 쌍으로 짝지어져 있다. 검사 채점은 7점 Likert척도이다. 우소연(2002)은 이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이다. 본 연구는 우소연(2002)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Cronbach $\alpha = .914$ 이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를 사용하였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의 하위요인에는 정서에 대한 주의(5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11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가 있으며 5점 Likert척도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해당하는 11문항을 사용할 것이다. 이하나(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67$ 이었다

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PASW Stastics 18.0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점검, 변인들 간 상관분석, 척도의 신뢰도 평가, 그리고 주효과와 조절효과분석을 하였다. 국내외의 연구들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왔다.

Gohm과 Clore(2002)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했으며,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Palfai(1995)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반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말했다. 더불어, 이하나(2006)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 표현성이 자아탄력성을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공변인으로 두고 분석을 하기로 한다.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억제적 정서규범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조절 회귀 분석 방법을 실시했다. 3단계 조절회귀분석이란 1 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x조절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조절효과는 3단계에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즉 3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회귀 모형의

설명력 변화가 유의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공변인으로, 정서표현성을 예측변인으로, 억제적 정서규범을 조절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변인 간 상관분석

변인간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비공유-정서표현성과 공유-정서표현성은 상관이 있었다. 억제적 정서규범과 비공유-정서표현성은 상관이 없었으며 공유-정서표현성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타인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억제적 정서규범의 영향을 받지만 혼자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억제적 정서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공유-정서표현성, 공유-정서표현성, 억제적 정서규범 모두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유의했다. 주관적 안녕감과 비공유-정서표현성과 공유-정서표현성은 양의 상관이 있었으며, 억제적 정서규범과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

표 4. 변인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인식의 명확성 통제	1	2	3	4	M	SD
1. 비공유-정서표현성	-	.437***	.028	.146*	40.56	9.45
2. 공유-정서표현성	.437***	-	-.140**	.266***	62.39	9.95
3. 억제적 정서규범	.028	-.140**	-	-.116*	63.60	7.56
4. 주관적안녕감	.146*	.266***	-.116*	-	48.00	10.66

주. *** $p < .001$, ** $p < .01$, * $p < .05$.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분석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공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예측변인)와 억제적 정서규범(조절변인)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공변인으로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통제된 상태

에서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이 주관적 안녕감 분산의 3.3%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의 상호작용($\beta = -.057,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 비해 전체적인 모델의 개선정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억제적 정서규범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표 5.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SE	β	F
1	정서인식의 명확성	.405	.081	.282***	25.176***
	R^2			.079	
	ΔR^2			.079	
2	정서인식의 명확성	.391	.081	.272***	12.237**
	비공유-정서표현성	.161	.062	.114**	
	억제적 정서규범	-.163	.078	-.118*	
	R^2			.112	
	ΔR^2			.033	
3	정서인식의 명확성	.388	.082	.270***	9.427
	비공유-정서표현성	.170	.063	.151**	
	억제적 정서규범	-.151	.079	-.108	
	비공유-정서표현성 x억제적 정서규범	-.008	.008	-.057	
	R^2			.115	
	ΔR^2			.003	

주. *** $p < .001$, ** $p < .01$, * $p < .05$.

표 6. 공유-정서표현성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i>B</i>	<i>SE</i>	β	<i>F</i>
1	정서인식의 명확성	.405	.081	.282***	25.176***
	R^2			.079	
	ΔR^2			.079	
2	정서인식의 명확성	.316	.080	.220***	17.115***
	공유-정서표현성	.256	.057	.249***	
	억제적 정서규범	-.109	.077	-.079	
	R^2			.150	
	ΔR^2			.071	
3	정서인식의 명확성	.293	.081	.204***	14.053***
	공유-정서표현성	.263	.057	.256***	
	억제적 정서규범	-.092	.077	-.067	
	공유-정서표현성 x억제적 정서규범	-.014	.007	-.113*	
	R^2			.163	
	ΔR^2			.012	

주. *** $p < .001$, ** $p < .01$, * $p < .05$.

서는 정서인식의 명확성(공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공유-정서표현성(예측변인)과 억제적 정서규범(조절변인)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공변인으로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이 주관적 안녕감 분산의 7.1%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의 상호작용항은 주관적 안녕감 분산의 1.2%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공유-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의 상호작용($\beta = -.014$,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억제적 정서규범은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그림 1은 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의 억제적 정서규범의 조절효과를 도시한 것이다. 낮은 공유-정서표현성 집단에 비해 높은 공유-정서표현성 집단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으나, 공유-정서표현성이 높으면서 억제적 정서규범이 높은 집단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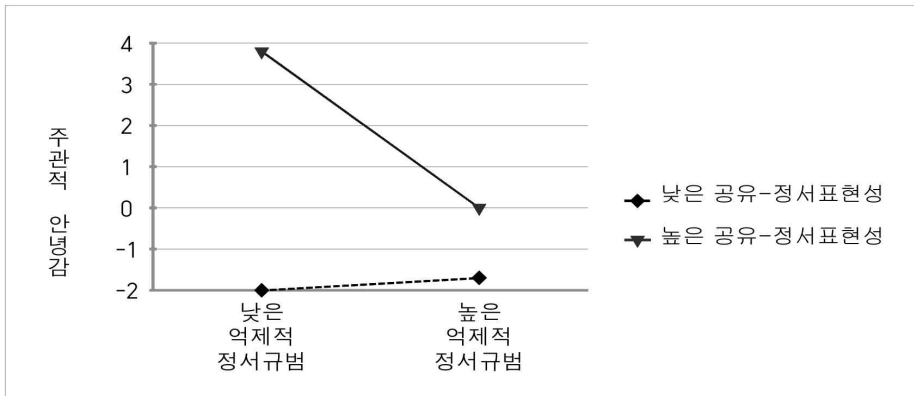


그림 1. 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종합논의

본 연구는 정서표현성의 유형은 두 가지일 것이라는 데에서 착안하였다. 즉, 동양인들은 혼자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Friesen(1973)의 연구결과를 통해, 혼자 있을 때 정서표현을 하는 것을 측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는 혼자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비공유-정서표현성(Alone-Emotional Expression)으로 명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또한, 혼자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타인과 함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공유-정서표현성과 공유-정서표현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한 연구로서 정서표현성, 정서규범,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1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Alone-Emotional Expression Scale)를 개발하였고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가 공유-정서표현성 척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상관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혼자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특성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정 상관이 있으며,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 특성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특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속성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는 2요인 모형이 적절하였고 부정 정서표현과 긍정 정서표현의 하위유형이 있었다. 또한 3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연구2에서는 정서표현성과 정서규범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았다. 우선,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억제적 정서규범의 역할을 검증한 결과,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는 정서표현성과 억제적 정서규범이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혼자 있을 때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는 억제적 정서규범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든지 간에, 정서표현을 하는 것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한다. 하지만 정서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억제적 정서규범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정서표현을 하게 될 때, 주관적 안녕감이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반면, 비공유-정서표현성은 혼자 있을 때 정서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정서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개인이 어떤 정서규범을 지니는지에 상관없이 비공유-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한다는 것이 연구2를 통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임상적 시사점은 첫째, 정서표현성의 유형을 세분화 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서표현성은 대부분 타인 앞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Freisen(1973)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인은 정서를 표현하는 양상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상이했다. 기존에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을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비공유-정서표현성으로, 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공유-정서표현성으로 구분하고 비공유 정서표현성 척도를 제작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억제적 정서규범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규범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

하였다. 즉, 정서를 표현하면 안된다는 정서규범을 내재화 한 사람들에게 정서를 억제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도록 제안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도록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이나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이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였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는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문항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면접법과 질적 연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공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정서인식의 명확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변인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변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다른 공변인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비공유-정서표현성과 공유-정서표현성이 차별적인 구성개념이 확인되었지만,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권의 영향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조심스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2004). 정서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성훈 (1994). 서비스직 근로자의 자기방어기제에 따른 대응행동과 직무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운 (2002). 신체화에 있어 문화심리학적 변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윤, 심현인, 이숙중(2014).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과 척도개발-온정적 인간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15-441.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07-123.
- 우소연 (2002).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미치는 정서 규범의 조절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현 (2001).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란 (2006).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8).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일 (1998). 체험정서와 표현정서의 심리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수 (2014).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에 (2002). 정서심리학. 서울: 범문사.
- 정은임 (2004). 정서표현성과 대처양식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김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0-257.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1), 132-155.
- 한정원 (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명호, 김민경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시,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61-176.
- 홍창희 (2003). 정서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Ekman, P., Friesen, W. V., O'Sullivan, M., Chan, A., Diacoyanni-Tarlatzis, I., Heider, K., et al. (1987).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judgment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712-717.
- Esterling, B. A., L'Abate, L., Murray, E. J., & Pennebaker, J. W. (1999). Empirical foundations for writing in prevention and psychotherapy: Ment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1), 79-96.
- Friesen, W. V. (1973).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s in a social situation: An experimental test on the concept of display rules*.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US.
- Gohm, C. L., & Clore, G.L. (2002). Four latent trait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well-being, coping, and attributional style. *Cognition and Emotion*, 16(4), 495-518.
- Gross, J. J., & John, O. P. (1995).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Three self-report factors and their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4), 555-568.
- Gross, J. J., & John, O. P. (1997). Revealing feeling: Facts of emotional expressivity in self-report,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35-448.
- Hochschild, A. R. (1979).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3), 551-575.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2(5), 154.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Kashdan, T. B., Volkman J. B., Breen, W. E., & Han S. (2006). Social anxiety and romantic relationships: the costs and benefits of negative emotion expression are context dependen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 475-49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nowles, E. D., Morris, M. W., Chiu, C. Y., & Hong, Y. Y. (2001). Culture and the process of person perception: Evidence for automaticity among East Asians in correcting for situational influences o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10), 1344-1356.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34.
-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352-367.
- Littrell, J. (1998). Is the reexperience of painful emotion therapeutic?.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1), 71-10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Riggio, R., & Friedman, H. (1982). The interrelationships of self-monitoring factors, personality traits, and nonverbal social skil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7(1), 33-45.

원고접수일: 2015년 3월 18일

논문심사일: 2015년 3월 30일

게재결정일: 2015년 8월 24일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Norm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YoungSun Yoon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istent experimental study on Asian emotional expressivity suggested that expressions of emotion are different between social situation and private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emotional expressivity in two types. The first type of emotional expressivity was co-emotional expression(CEE) expressed in social situation. Most existent emotional expression scale uses CEE. The second emotional expressivity was alone-emotional expression(AEE) expressed in private situation. In Study 1, AEE scale(AEES) was developed and validated. For this study, preliminary scale with a total of 31 items was administered to 230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2 items were selected. They were administered to 294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10 items were finally selected for AEES. Reliability of the AEES was evidenced by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adequate test-retest reliability estimates over a three-week period. In Study 2,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nor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deter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norm was tested using the procedure of Baron and Kenny(1986).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al norm between AE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ontras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al norm between CEE and subjective well-being.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Emotional expressivity,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norm

부 록

부록 1.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 예비문항

1. 부정적 감정(슬픔, 두려움, 불안, 분노, 속상함 등)을 느낀 일에 대해 일기를 쓰거나 글을 쓴다.
2. 긍정적 감정을 느낀 일에 대해 일기를 쓰거나 글을 쓴다.
3. 신경질이 나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신경질을 낸다(물건을 던지기, 소리지르기 등).
4.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웃는다.
5. 슬플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소리내어 운다.
6.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른다.
7.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크게 웃곤한다.
8.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한다.
9. 슬플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슬픈 노래를 부른다.
10. 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다.
11. 감사를 느끼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다 만다.
12. 나는 긍정적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다.
13.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욕을 하곤 한다.
14. 나는 기분이 좋더라도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15. 슬플 때, “슬프다” 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16. 기쁠 때, 자축한다.
17. 나는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춘다.
18.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화를 낸다.
19.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보다 혼자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20.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보다 혼자 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
21. 외로울 때, “외롭다” 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22.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면 “행복하다” 라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23. 나는 혼자 슬픈 영화를 보면서 운다.
24.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짜증을 낸다.
25. 혼자 있을 때, 울고 싶으면 참지 않고 운다.
26. 나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27. 편안할 때, “편안하다” 라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28.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한다.
29. 혼자 TV를 보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연을 보게 되면 분노를 표출한다.
30. 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싫어한다.
31. 억울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나는 혼자서 화를 내거나 운다.

부록 2.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 본문항

1. 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슬픔, 두려움, 불안, 분노, 속상함 등)을 표현하기 보다는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다.
2. 긍정적인 감정(기쁨, 행복함, 편안함, 흥분함, 후련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한다.
3. 나는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춘다.
4. 억울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화를 내거나 운다.
5.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화를 낸다.
6. 기쁠 때, 자축한다.
7.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크게 웃곤 한다.
8. 신경질이 나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신경질을 낸다(물건던지기, 소리지르기 등).
9.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욕을 하곤 한다.
10.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른다.
11.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면 “행복하다”라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12.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짜증을 낸다.

부록 3. 비공유-정서표현성 척도 최종문항

1. 나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슬픔, 두려움, 불안, 분노, 속상함 등)을 표현하기 보다는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다.
2. 나는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춘다.
3. 억울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화를 내거나 운다.
4.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화를 낸다.
5. 기쁠 때, 자축한다.
6.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크게 웃곤 한다.
7. 신경질이 나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신경질을 낸다(물건던지기, 소리지르기 등).
8.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른다.
9.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면 “행복하다”라고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잣말을 한다.
10.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짜증을 낸다.